

## 반 드 벨데의 응집성 연구

이재원(한국외대)

### 1. 서론

로저 반 드 벨데 Roger G. van de Velde는 1981년 독일어로 된 『해석과 응집성 그리고 추론 Interpretation, Kohärenz und Inferenz』(1981)이라는 책을 저술하게 된다. 이것은 응집성 Kohärenz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한 텍스트언어학 분야에서 비교적 초창기 저서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 책이 (피상적일 수 있고 복잡하지만) 응집성에 대한 어느 정도 선구적인 이론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텍스트언어학의 장에서 논의가 미미할 뿐 아니라 —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 거의 소개조차 되지 않은 실정이다. 본고는 반 드 벨데의 응집성 연구의 전체적 소개와 그의 이론에 대한 (간략한) 비판적 고찰에 향해 있다.

### 2. 본론

#### 2.1. 응집성: 해석과 언어 이해를 위한 전제

반 드 벨데의 궁극적 관심 영역은 ‘해석 Interpretation’과 ‘언어 이해 Sprachverstehen’이다. 따라서 “무엇을 통해서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가” 또는 “어떤 요소가 언어 이해를 규정짓는가”(1)<sup>1)</sup>라는 물음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답하는 것이 그가 추구하는 우선적 목표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저서 첫 문장에 명시되어 있다: “이 책은 어떻게 언어이해가 가능한가라는 물음과 관련되는 몇 개의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해석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1) 그에 있어서, 응집성이 언어 이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사실은 다음의 인용문

1)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반 드 벨데의 『해석과 응집성 그리고 추론』(1981)의 쪽 수를 의미함.

에 잘 나타나 있다.

가정 1

언어적 시각에서뿐만 아니라 언어 이해로 향하는 복합 학문적이고 학제적 관점에서 보면, 응집성은 언어 발화(언어적 발화고리)의 이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간주된다.<sup>2)</sup>

따라서 반 드 벨데에 있어서 응집성은 자체가 목적이 아닌, 해석과 언어 이해를 위한 하나의 수단적 성격을 지닌다. 다시 말해서 반 드 벨데의 응집성 이론에 있어서 '가정 1'에 해당하는 (따라서 가장 중요한) 위의 구절은 —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 다음과 같은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응집성은 언어 발화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또는 이해에 도달되기 바로 전에 위치하는 어떤 추상적 단계이다.” 결국 반 드 벨데에 있어서 응집성은 언어 이해를 위해서 필연적으로 거쳐가야 할 정류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경험적 (또는 실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실어증 환자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1. 추론 과정들이 응집성 구성을 목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이 추론 과정들은 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를 토대로 해야만 한다. 그런데 언어적 거시 단위의 후반부나 전반부를 보지 할 수 없는 실어증 환자와 같은 경우가 있다. 즉 [이들에게 있어서는] 뇌에서의 혼란 때문에 언어적 거시구조가 생산되지 못하고, 그 결과 전체 거시구조가 이해 될 수 없다.
2. 지각 장애를 가진 실어증 환자들이 자신들에게 제공된 거시적 자료에서 단지 분리된 어휘만을 이해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가끔은 통사적 연결과 응결관계 Kohäsionsbeziehungen가 있는 말을 할 지라도, 내용적 관련들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경우, 지각 장애를 가진 실어증 환자들은 응집성을 완벽하게 구성할 수 없고, 언어 이해를 성공적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sup>3)</sup>

2) 위의 책 11쪽. 이러한 주장은 약간 변형되어 가정 5에서 다시 출현한다: “개별언어 Spi에서 발화들의 연속에 대한 언어이해는 만약 응집성 관련들이 완전하게 충족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32)

따라서 반 드 벨데의 응집성 개념은 “추론되기 이전에 장·단기 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와도 관련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응집성과 이해와의 관련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확장된 정리가 도출된다:

#### 정리 6

응집성이 1) 언어 내적 차원, 2) 인간 내면적 차원, 3) 지시관련과 사건관련의 차원 그리고 4) 인간 상호간의 통보 차원에서 구성될 수 없으면, 그 발화 연쇄는 결코 거시적 이해에 기여하지 못한다.(27)

개괄적으로 보아, 이것은 마치 드 보그랑데·드레슬러(1981)의 텍스트성 Textualität의 기준과 흡사해 보인다. 왜냐하면 이들의 텍스트성들은 언어적 차원의 응결성과 응집성(텍스트적 요인), 정신적 차원의 의도성과 용인성(심리적 요인), 현실적 차원의 상황성과 간텍스트성(사회적 요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보적 차원에서의 정보성(정보처리적 요인)으로 구분되기 때문이고, 또한 이러한 모든 기준이 충족되어야만 반듯한 텍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측면에서 고찰하면 반 드 벨데의 ‘응집성’은 드 보그랑데·드레슬러의 ‘텍스트성’과 유사할 수도 있다.<sup>4)</sup>

여하튼, 이러한 반 드 벨데의 다양한 차원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반 드 벨데의 응집성은 개별적 요소가 아닌 “전제적 요소들의 집합 eine Menge von bedingenden Faktoren”(12)으로 간주된다. 다시 말해서 — 텍스트

- 
- 3) 반 드 벨데(1981: 33). 정상인이 아닌 실어증 환자들을 연구 관찰하여 정상인의 언어 능력에 대해서 증명하려는 위와 같은 시도는 자연과학에서 흔히 있을 법한, 귀류법의 논증원리와 유사하다. 귀류법은 한 명제가 진실임을 증명하는 대신, 그 부정 명제가 진실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그것이 모순됨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원 명제가 진실이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증명법이다. 이런 종류의 논증을 ‘간접증명’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간접증명 그 자체를 귀류법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것이 인문학적 증명방법으로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 4) “인간의 의사소통 행위 속에 나타나는 텍스트성에는 언어, 정신, 현실 그리고 의사소통의 요소들이 모두 개입되어 있다고 했다. 응집성과 결속성[응결성과 응집성]은 언어, 의도성과 용인성은 정신, 상황성과 상호텍스트성은 현실, 정보성은 의사소통과 관련된다고 했다.” 권재일(1999: 207), “인간의 통화 행위[통보 행위] 속에서 발휘되는 텍스트성의 제국면에는 언어 language와 인간 정신 mind과 외적 현실 reality, 그리고 통화적[통보적]요소가 개입되면 ...”(김태욱·이현호(1990: vii)).

이해의 경우처럼<sup>5)</sup> — 텍스트 이해의 전제 조건이 되는 응집성 또한 다양한 차원에서 고찰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사실 '응집성'을 텍스트 이해의 차원과 연관 짓는 시도는 — 저자 자신이 언급하고 있듯이(2) — 당시로서는 새로운 방식이었다.

## 2.2. 응집성의 여러 가지 차원들

반 드 벨데의 응집성 연구의 중요 특징은 — 전장 말미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 응집성의 다양한 차원이다. 응집성 연구에서 여러 가지 차원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분류하여 연구하는 것은 — 당시까지는 물론 지금까지도 — 독특한 시각이다.<sup>6)</sup> 위와 같은 반 드 벨데의 응집성 연구의 여러 차원은 다음과 같은 물음에서 연유한다:

- 1) 언어 내적으로 존재하는 요소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응집성의 전제가 되는가?
- 2) 인간 내면적으로 존재하는 요소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응집성 구성'<sup>7)</sup>의 전제가 되는가?
- 3) 인간 내면적으로 존재하는 '응집성 구성'의 요소들이 어떻게 언어 내적으로

---

5) 텍스트 이해의 차원이 다양하다고 함은, 이삼형(1999: 317 이하)에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층위에서의 이해'와 관련된다: 가) 사실적(축자적) 이해: 액면 그대로 받아들임, 텍스트와 관련, 나) 화·청자의 이해: 발화자의 의도 파악, 화자와 청자와 관련, 가)보다 높은 수준의 이해, 다) 비판적 이해: 화자적인 요소 이외에 청자가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어떤 것과 관련, 독자 중심이해, 라) 창조적 이해: 텍스트를 완전히 벗어남. 텍스트에 제시된 문제에 대해 텍스트에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것과 관련.

6) 왜냐하면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응집성'이라 함은 의미적(벨데의 관점에서는 '언어 내적') 차원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7) 반 드 벨데는 '응결성 현상: 응집성 관계'라는 낱말 쌍을 구성한 것과 마찬가지로 '언어 내적-응집성 : 인간 상호적-응집성 구성'이라고 칭하면서 응집성 차원에 따른 슬어 상의 약간의 변형을 가한다. 이것은 반 드 벨데가 응집성을 규정하기 위해 '인간 상호적(필자의 견해로는 화자/생산자/저자 : 청자/수용자/독자 상호간을 의미하는 듯 함)'이라는 슬어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인지적 과정 *kognitive Prozesse*을 염두에 둔 듯하다.

- 존재하는 응집성 요소들에 근거를 가지게 되는가?  
 4) 어떤 논리적 방식들이 응집성 산출을 가능하게 하는가?  
 5) 통보에 있어서 인간 상호간의 어떤 요소들이 응집성 구성의 전제가 되는가?  
 6) 어떤 지시적 소여성과 행위 문맥이 응집성 구성의 전제가 되는가? (13)

다음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다:

- (a) 응집성은 우선적으로 언어 내적인 소여성에서, 즉 생산된 발화의 틀 내에 존재하는 성질로서 파악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정1에 의해서 응집성은 언어 내적으로 존재하는 언어 이해의 가장 중요한 전제이다.  
 (b) 다른 한편으로 응집성은 '응집성 구성'으로 표현된 창조적인 과정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응집성은 가정1에 의해서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언어 이해의 가장 중요한 전제이다. 특히 (b)의 의미에서 언어적 창조성의 원칙은 대단히 중요하다.  
 (c) 응집성은 또한 발화(의 연속)에서 다루어지는 사건 관련들과 지시 관련들의 성질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응집성은 가정1에 따라서 언어 이해의 가장 중요한 가정으로서 기능 한다.  
 (d) 그밖에도 응집성은 통보적 틀 관련 성질이다. 그곳에서 인간의 자연언어로서 생산된 발화들은 자신의 기능을 가진다. 여기서 응집성은 가정 1에 의해서 언어 이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인간 상호간의 전제이다.  
 (e) '응집성'은 (a), (b), (c) 그리고 (d)의 경우를 위한 전체적인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정1은 함축성을 가진다.(18)

### 2.2.1. 언어중심 응집성

결론적으로 반 드 벨데의 응집성 연구에 있어서의 여러 차원은 1) 언어 내적, 2) 인간 내면적, 3) 지시-대상적, 4) 인간 상호적 등, 네 가지 차원으로 간략히 표현될 수 있다. 왜냐하면 2.2장의 응집성 연구를 위한 질문의 대답 중에서 (e)는 위의 네 가지 차원들을 포괄하는 메타적 답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은 기존의 구분들(1. 텍스트 통사론적 응집성, 텍스트 의미론적 응집성, 텍스트 화용론적 응집성(드레슬러 W. Dressler: 1973), 2. 표층적 응결성, 심층적 응집성(링케/누쓰바우머/포르트만 A. Linke/P. R. Nussbaumer/M. Portmann:

1996), 3. 구조중심 응집성, 통보(기능)중심 응집성 그리고 통합적 개념의 응집성(브링커 K. Brinker: 1997) 등)과 용어상의 구분은 되지만 — 또한 어느 정도의 외연적 차이점은 인정되지만 — 궁극적으로 심층적인 차이점은 존재하지 않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반 드 벨테에 있어서 이러한 여러 차원에서의 다양한 질문 중에서도 언어 내적 관점이 가장 중요한 토대를 이룬다는 점에서는 이들과의 차이가 존재한다.(12) 다음의 예시문을 토대로 해서 이러한 언어 내적 응집성의 8가지의 원칙을 살펴보자.

예) 3

만약 요한이 자기 여자 친구가 가든파티에 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더라면, 그녀 역시 이 우쭐대는 예술가 앞에서 포즈를 취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어떤 별스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다. 이제 그녀는 선정적인 신문에 의해 부풀려진 스캔들에 말려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다. 다른 젊은 여자들은 자신들의 경솔함에 대해서 참회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이 가든파티에서는 패션쇼의 주관자들이 옷을 차려입은 여인들과 함께 번듯하게 계획된 효과를 목표로 하는 고상한 패션쇼 같은 것은 거행되지 않았다.

이 가든파티에서 한 젊은 여자는 자신의 말과 함께 포즈를 취했다. 이 네 발 달린 동물은 서 있었다. 그 여장부는 승마복을 입지 않은 채 말을 타고 돌아다녔다. 후에 수상쩍은 '이벤트 구조'가 조직되었다. 거기서 여자들은 여러 종류의 연극적 스타일 효과에 도달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전체는 스타일 없이 막이 올라갔다. 따라서 질책성의 비난이 담겨있는 논평을 피할 수 없었다.(24)

- 1)  $a \cdot a_1 \cdot a_2 \cdot a_3 \dots a_n$ 에서의 한 부분이, 자신의 의미적 성질이 다시금 재수용 되고, 언어 중심적 추론이 대치어와 피대치어 사이의 동지시적 동일성이라고 생각하면, 응집성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예) 3에서 말과 네 발 달린 동물이 이 조건을 충족한다.(42)
- 2)  $a \cdot a_1 \cdot a_2 \cdot a_3 \dots a_n$ 에서의 한 부분이, 자신의 통사적인 성질이 다시금 재수용 되고, 언어 중심적 추론이 대치어와 피대치어 사이의 동지시적 동일성이라고 생각하면, 응집성이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예) 3에서 그의 여자 친구와 그녀가 이 조건을 충족한다.(42)
- 3)  $a \cdot a_1 \cdot a_2 \cdot a_3 \dots a_n$ 에서 출현하는 어휘적 단위의 토대에서 추론이 이루어

진다면, 그리고 이러한 추론이  $a_k \cdot a_1 \cdot a_m \dots a_2$ 에서 다시금 수용된다면, 응집성 관계가 성립된다. 따라서 우리의 예) 3에 있어서는 포즈를 취하다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진 추론이 다시금 뒤따르는 발화, 특히 연극적 스타일 효과에 도달하다에서 다시금 수용된다. 이러한 재수용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은 조건문에 의해서 수행될 수 있다: 만약  $x$ 가 포즈를 취하면  $x$ 는 어떤 효과를 목표로 한다; 만약  $x$ 가 어떤 효과를 목표로 한다면 그 효과는 연극적 스타일 효과로 보여질 수 있다.(43)

- 4)  $a \cdot a_1 \cdot a_2 \cdot a_3 \dots a_2$ 에서 출현하는 통사적 단위의 토대에서 추론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이러한 추론이  $a_k \cdot a_1 \cdot a_m \dots a_2$ 에서 다시금 수용된다면, 응집성 관계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우리의 예) 3에 있어서 고상한 패션쇼 같은 것은 거행되지 않았다와 전체적으로 고상하지 못하게 시작되었다 사이의 추론 관계가 이에 해당한다.(43-44)
- 5)  $a \cdot a_1 \cdot a_2 \cdot a_3 \dots a_2$ 에서 하나의 어휘 단위가 존재하고  $a \cdot a_1 \cdot a_2 \cdot a_3 \dots a_2$ 에서 이루어진 추론이 이 어휘 단위에 포함되어 있으면 응집성 관계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예) 3에서 경솔함이 출현하고, 이것은 예) 3에서 나온 다음과 같은 추론에 포함되어 있다: “이벤트 구조”에 참여하는 여인들은 자신들의 경솔함에 의해서 눈에 띈다.(44)
- 6)  $a \cdot a_1 \cdot a_2 \cdot a_3 \dots a_2$ 에서 통사적 무리가 존재하고  $a \cdot a_1 \cdot a_2 \cdot a_3 \dots a_2$ 에서 이루어진 추론이 이 통사적 무리에 포함되어 있으면 응집성 관계는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예) 3에서 연극적인 스타일 효과가 출현하게 되고, 이것은 예) 3에서 나온 다음과 같은 추론에 포함되어 있다: 아마도 여자들은 “이벤트 구조”에서 여러 가지 행위 관계가 눈에 띄게 마음 상하게 되었다는 것에 의해서 연극적인 스타일 효과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을 것이다.(45)
- 7) 만약  $a \cdot a_1 \cdot a_2 \cdot a_3 \dots a_2$ 에서 어휘적인 단위의 토대 위에서 존재하는 추론이 진행되는 텍스트 수용의 과정에서 완성되고, 이러한 추론이 자신의 편에서  $a \cdot a_1 \cdot a_2 \cdot a_3 \dots a_2$ 에서 수행된 추론에 포함되어 있으면, 응집성 관계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속되는 예) 3의 텍스트 수용과정에서 스캔들에 의해서 가든파티에서 수행된 하나 또는 여러 행위들이 무례한 행동의 의미에서 관찰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이 질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추론 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예) 3에서 이루어진 추론에 포함되어 있다.(45)
- 8)  $a \cdot a_1 \cdot a_2 \cdot a_3 \dots a_2$ 에서 통사적인 무리의 토대 위에서 존재하는 추론이

진행되는 텍스트 수용의 과정에서 완성되고, 이러한 추론이 자신의 편에서  $a \cdot a_1 \cdot a_2 \cdot a_3 \dots a_n$ 에서 수행된 추론에 포함되어 있으면, 응집성 관계가 구성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속되는 예) 3)의 텍스트 수용과정에서 만약 요한이 자기 여자친구가 이 가든 파티에 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다면에 의해서 자기의 여자친구는 가든파티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 추론 될 수 있다.(45)

반 드 벨데의 응집성 원칙 1)은 그레마스 J. A. Greimas가 발전시킨 텍스트 의미적 차원에 위치하는 동위원소 Isotopie 개념과 닮았다. 또한 반 드 벨데의 응집성 원칙 1)-8)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을 다시금 두 개의 그룹으로 분리 할 수 있다: 즉 1)-4)는 발화 연쇄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이 (추론적으로, 좀더 정확히 말하면 함의(entailment)적 성질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재수용 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고,<sup>8)</sup> 5)-8)에서는 내용적으로 관련 있는 거시적 언어체와 관련 된 추론이 관건이다. 두 번째 그룹에서의 추론적 성격은 첫째 그룹에서보다도 훨씬 분명하다. 반 드 벨데에 있어서 언어적 차원의 응집성이란 이 두 가지 경우 모두와 관련 있다. 이것은 언어적 재수용 과정과 추론과정에서 응집성이 구성되고, 따라서 이것이 곧 텍스트 이해라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의미 한다. 즉 응집성은 추론과 이해 사이에 위치한 어떤 것이다. 예를 들어 응집성 원칙 1)에서 어휘적 단위 ‘말’과 ‘네 발 달린 동물’ 사이에 응집성이 구성될 수 있다는 견해는 다음과 같은 어휘적 추론에 의해서이다:

만약 x가 말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x는 생물이라는 성질 또한 가진다.

만약 x가 말이라는 성질을 가지게 된다면 x는 젖먹이 동물이라는 성질 또한

8) 슬어 ‘재수용 Wiederaufnahme’은 브링커(1996)에 의해서 유명해진 용어이다. 그에 기 대면 “문법적 기술 층위에서 ‘문법적 응집성 grammatische Kohärenz’, 다시 말해서 텍스트결합관계 Textzusammenhang에 관여적인, 텍스트의 연속하는 문장들 간의 통사론적, 의미론적 관계를 연구한다.”(21). 그리고 이러한 결합관계를 산출하는 다양한 언어적인 수단이 재수용 원리이다. 이러한 재수용은 명시적 재수용 explizite Wiederaufnahme과 함축적 재수용 implizite Wiederaufnahme으로 세분되는데, “‘명시적’ 재수용이란 어떤 텍스트에서 일정한 언어 표현들이 병렬 접속된 문장들과 동시 시 관계(Referenzidentität/Koreferenz: 지칭의 동일성)에 있음을 말한다.”(27)



가진다.

만약 x가 말이라는 성질을 가지게 된다면 x는 어떤 구체적인 실체라는 성질 또한 가진다.

만약 x가 말이라는 성질을 가지게 된다면 x는 인간이 아닌 실체라는 성질 또한 가진다.

만약 x가 말이라는 성질을 가지게 된다면 x는 네 발 달린 동물이라는 성질 또한 가지게 된다.(47)

그러나 위와 같은 어휘적 추론들이 언어 중심적 추론이고, 또한 이것을 어휘적이라고 명명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점이 뒤따른다. 왜냐하면 위의 추론에는 연상, 표상, 세상 지식 등과 같은 언어 외적인 여러 요소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 드 벨데에 의하면 이러한 추론은 — 응집성이 이해의 전 단계 역할을 하는 것처럼 — 응집성의 전 단계이고, 응집성의 본질을 규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 드 벨데에 있어서 추론은 문법과 대립되는 개념이고, “특히 언어 소여성의 내용적인 측면과 관련되는 추론 규칙은 ‘응집성’ 개념에 의해서 고려될 수 있다.”(23) 그러나 이러한 추론이 이성적으로 증명 가능한 결론과 관계 있는 한에 있어서 — 필자의 견해로는 — 논리학 또는 인지과학에 속한다.<sup>9)</sup> 반 드 벨데의 추론과 응집성 그리고 이해 사이의 관련을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추론 → 응집성 → 이해

따라서 반 드 벨데 자신도 언급하고 있듯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완벽한 대답은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러한 질문들의 경계 또한 불명확하고 겹

9) 텍스트언어학에서 추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드 보그랑데/드레슬러적 텍스트이론에 기대는 김태욱(1996: 113)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텍스트는 표현들이 이루는 언어적 구성체라기보다는 통화자가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인지적 구성체다. 텍스트는 언제나 추론을 통해서만 이해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정보의 흐름이 안정성을 회복한다. 즉, 텍스트는 그 자체만으로는 하나의 미완성체이며 수용자의 머리에 비축된 경험 및 배경 지식과의 상호관련 속에서만 처리되고 이해된다.”

쳐진다는 사실이다.(13)

### 2.2.2. 논리적·인간 상호적 관점에서의 응집성

위와 같은 언어 중심의 응집성이 전개되고 난 후, 제 4장에서 ‘논리적·인간 상호적 관점에서의 응집성’(72)이라는 제목이 뒤따르게 되는데, 반 드 벨데에 있어서 이것은 응집성 현상의 여러 차원 중에서 두 번째 차원에 해당된다. 여기서 화두가 되는 것은 “응집성이 없으면 이해가 불가능하다”와 “응집성이 없으면 거시적 이해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가정이다. 반 드 벨데는 범위를 좁혀 응집성을 순수한 언어 내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범위를 넓혀 언어 외적 관점에서 고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문의 예를 이용한다.

1)

만약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면,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Wenn ich weiss was ich nicht weiss, dann weiss ich alles.) (72)

전통적으로 역설 paradox로 이해되고 있는 위와 같은 발화에서, 우선적으로 반 드 벨데는 언어 내적인 응집성이 어느 정도로 충족 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만약 이 발화에서 언어 내적인 관점을 사용한 응집성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다른 영역에서 보충 지표들이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러한 보충 지표의 도움을 받은 응집성은 지금까지 다루어 왔던 언어 중심 차원의 응집성과는 어떻게 구분 되는가라는 것이 ‘논리적·인간 상호적 관점에서의 응집성’ 구성의 출발점이다. 여기서는 언어사용 단위인 텍스트와 텍스트 단편 뿐 만 아니라, 예 1)과 같은 광범위한 언어사용 현상 또한 관련 있다. 이러한 언어사용 현상의 연구는 응집성의 구성 조건이 순수한 언어 내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언어 외적 차원의 관점에서도 연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관련 지워서 반 드 벨데는 응집성 구성을 위한 조건 내적 그리고 조건 외적 출발점을 구분한다. 조건 내적 관점 하에서는 고전적인 술어논리가 언급된다. 예를 들면 예 1)은 다음과 같은 진리표의 도움으로 설명될 수 있다.(76)

2)

진리표( $p \rightarrow q$ )	p	q	$p \rightarrow q$
	W	W	W
	W	F	F
	F	W	W
	F	F	W

여기서 'p'는 예 1)에서 '만약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면'이고, 'q'는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에 해당된다. 그러나 여기서 다음과 같은 많은 의문점이 발생한다: 명제내용 Propositionsinhalt에 관한 것으로, '내가 모르는 것'의 지시체가 무엇인가? 우리들은 현실과 결합된 이것의 지시체를 발견할 수 있는가? 예 1)의 진리치 구성의 역할 요소들을 찾는데 있어서 통사적·의미적 추론이 기여할 수 있는가? 소위 가능세계의 의미론 possible world semantics적 관점에서 살펴보아도 예 1)의 의미적 불확실함이 제거되지 못한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결과부는 이러한 명제내용의 진리치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대답은 여전히 미정인 채로 남아있다. 왜냐하면 '만약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면'과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진리치 '미정'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예 1)의 조건부와 결과부 사이의 내적 관련이 사라졌다. 따라서 반 드 벨데는 새로이 중요서 논리 Relevanzlogik/ Signifikanzlogik<sup>10)</sup>를 끌어들인다. 중요성 논리에 기대서 예 1)을 설명하자면, 동사 '알다 wissen'의 여러 가지 상이한 쓰임새, 예 1)에서의 시간 문제 그리고 행위 문맥과 상황 등이 중요하다. 동사 '알다'를 봐리히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1978: 897).

10) '중요성 논리'를 한 마디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반 드 벨데는 이것이 다음과 같은 데마영역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한다: "1) 발화에서 출현하는 개별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중요성을 지니게 되는가 또는 추론이 토대가 되는 것이 관건일 경우 발화는 자신의 중요성을 어떤 식으로 지니게 되는가? 2) 고전적인 술어논리가 논리적인 접사들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지적하고 있는 역할은 어떻게 제거 될 수 있는가?" (1981: 80).

3)

- (1)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 (2) 어떤 것에 대한 예감을 가지고 있다
- (3) 기억 속에 어떤 것을 가지다
- (4) 어떤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다
- (5) 어떤 것에 대해서 확신하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예 1)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무수히 많은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 (81이하)

4) 만약 내가 안(1)을 (1)면, 나는 모든 것을 (1).

(1) (2) (1).

(1) (2) (3).

. . .

(2) (1) (2)

(2) (2) (2)

...

이러한 사실은 예 1)의 조건 내적인 관련들이 궁극적으로 확실한 해결점을 제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시간 표지와 행위문맥 표지 그리고 상황 표지에서도 위와 유사한 현상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술어논리 뿐만 아니라 중요성 논리에 의해서도 예 1)의 해석이 용이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어 등장하는 것이 조건 외적 방향이다. 반 드 벨데는 조건 외적인 연구에 있어서 화용론적 테마 영역 이외에 심리적인 것 또한 다루고 있다: “모호함을 제거한다는 사실은 일반 심리학적 그리고 언어 심리학적 조사를 의미한다.”(87) 즉 심리적인 측면으로서 명제 태도 *propositionale Attitüde*가 적용되고 있다. 그밖에도 통보 행위에서의 의도, 실제적 관련들의 인지적 작업 그리고 통보 테마에 대한 사전 지식이 아주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9명의 피실험자에게 예 1)을 들려주고 난 후에, 이들이 이해 과정을 역추적함으로써 알 수 있다고 반 드 벨데는 주장한다. 이를테면 이들 피실험자들의 이해과정에서는 결과 내적인 이해 전략(술어논리, 중요성 논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지적인 추론 즉 다시 말해서 이러한 추론 내에서 발화들의 고리 사이, 발화와 발화의 통보적 문맥 사이의 내용적인 관련들이 구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반 드 벨데 자신이 직접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sup>11)</sup> 이러한 것들 또한 응집성 구성에 있어서 제압하기 힘든 심리적인 현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흥미로운 일련의 확장은 필연적으로 반 드 벨데의 다음과 같은 견해와 맞물려 있다: “응집성 구성에 있어서 인간 내면적 관점이 [...] 적합한 주의를 끌만하다. 왜냐하면 응집성 구성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심리적인 것으로서 제시되기 때문이다.”(100) 그러나 위와 같은 역설적인 문장은 최근의 화용론에서 ‘대화함축 conversational implicature’<sup>12)</sup> 이론의 도움으로 훌륭하게 설명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위의 예문과 같은 역설적인 발화는 “얼핏 보기에 모순되거나 넌센스적인 말, 또는 참이 아닌 말처럼 보이는데, 좀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잘 드러나지 않았던 숨겨진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경우”<sup>13)</sup>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서 예문 1)을 듣는 청자는 이 발화의 표면적 진리치가 거짓임을 알게 된다. 그러면 화자는 청자를 속일 수 없다. 청자는 화자가 협력원칙에 입각한 발화를 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만약 화자가 묘하게 이런 원칙을 어긴다고 할 지라도, 심층의 어떤 층위에서는 화자가 “진행되고 있는 대화의 한 단계에서 당신이 참여하고 있는 대화가 수용한 목적 또는 방향이 요구하는 바대로 당신의 대화가 공헌하도록 만들어라”<sup>14)</sup>라는 협력원칙을 고수할 것이라

11) 반 드 벨데(1981: 100쪽)를 참조할 것.

12) “의사소통은 머리 속에서 생각해낸 것을 만족스럽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으며, 자신이 전달하고자하는 내용을 100% 전부 말로 표현하지 않고 적당한 부분은 듣는 사람이 알아서 처리해 주길 바라는 경우도 있다. 말을 듣는 사람, 즉 청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 즉 화자의 말에 직접적으로 표현된 뜻만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도 그 이면에 전달되는 의미까지를 확인해야 할 때가 많다.” 이성범(2001: 21). 이러한 추론의 한 분야가 함축이다. 일반적으로 함축은 화자와 관련되고 추론은 청자와 관련되는 개념이다. 함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첫째, 문장에 쓰인 특정한 어휘나 구문이 갖는 고정적인 의미 때문에 얻어지는 함축으로, 그라이스는 이를 ‘고정함축/관례적 함축 conventional implicature’으로 이른다. 이와는 달리,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발화맥락을 활용하여 표층적인 표현 이면에 의미를 감추는 방법이 있다. 이것을 대화함축 conversational implicature이라고 한다. 그라이스(H. P. Grice, 1975).

13) 이성범/장인봉/전혜영/최명원(2002: 19).

고 믿는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협력원칙을 어기면서 화자는 청자에게 심층적으로 협력원칙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전달하려는 의미를 확대 해석하도록 강요한다. 따라서 화자가 상호 협력하고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화자가 실제로 말한 것과 다른 무엇인가를 뜻하고 있다고 확대해석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예문 1)과 같은 일견 (질의 격률을 어긴) 모순되는 문장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매끈한 이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용적 추론’이라는 반 드 벨테의 제안이 가치 있는 것은, 그가 위와 같은 화용론자들의 논의의 초창기에 이미 독자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응집성과 관련지어 해결하려 시도했다는 점이다.

### 2.2.3. 인간 내면적 관점에서의 응집성

전장에서 예 1)에 대한 논의는 논리학적 방향에 위치한 의미론과 많은 관련이 있었지만, 논리학과는 무관한 차원과도 관련 있음에 틀림없다. 이런 관점을 반 드 벨테는 통보적 문맥에 위치시키고 있다. 그는 이것을 다시금 의도 *Intentionen*, 사전지식 *Vorkenntnissen*, 지각적 결정요소 *perzeptive Determinanten*, 정보처리기계 *Informationsverarbeitungsmechanismen* 그리고 개인적 특성 *Persönlichkeitsmerkmale*과 관련 지운다. 따라서 여기서는 심리학, 신경 심리학 그리고 신경 언어학적 관점이 중심이다.

반 드 벨테에 의하면, 통보적인 관련이 존재하지 않으면 언어이해가 성공할 수 없다. ‘통보적’은 화자(생산자)· 청자(수용자)를 전제한다. 이러한 개인에 있어서 의도성 *Intentionalität*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다음과 같은 통보상의 불완전성은 항상 통보파트너가 사용하는 자연언어에 내재해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다음과 같은 현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언어 수용자가 이해하는데 지장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언급된 언어 내적 ‘응집성 조건’ 그리고 이것과 결부된 ‘언어적 추론’ 등이 언어 이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

14) 그라이스(1975: 45).

- 5)
- (a) 잘못 말하는 경우, 잘못 읽은 경우
  - (b) 말을 더듬는 경우, 전혀 기대하거나 생각하지 않았던 휴지가 발생하는 경우
  - (c) 표현에 있어서 실어증적 장애가 있는 경우
  - (d) 사투리로 채색되어 있는 경우, 개인적으로 유별난 변이형의 경우
  - (e) 적합하지 않은 표현 형식(잘못된 낱말 선택, 사회 문화적 관습에서 일탈 되는 발화)
  - (f) 구두로 된 통보에 있어서 아주 심하게 반복되는 표제어, 격언 그리고 관용구
  - (g) 일상적 지식이나 전문 지식 등의 형태를 빗대어 말하는 표제어의 경우
  - (h) 문법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발화들의 경우.
  - (i) 특별한 의미적 변칙의 경우 [...] (103-104)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것들보다도 인지적, 통보적, 부수 의미적, 연상적, 평가적 인자들이 언어 이해에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심리학자 클락 H. H. Clark(1977)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권한부여 Autorisierung’ 또는 ‘인가된 추론 autorisierte Inferenz’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는데, 이것은 언어 생산자의 의도를 소급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 제공의 권한 부여를 위한 신뢰할 만한 척도로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에 의하면 이러한 클락의 제안이 반 드 벨데에 있어서는 구체적이지 않고 너무나도 심리학적인 차원(이들테면 교양의 정도, 가치지향, 기대, 소망, 믿음, 사물에 대한 지식, 동기 등)에 기대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드 벨데에 있어서 분명한 사실은, 응집성 구성을 위해서는— 이것이 논리적 의미에서든 심리적 의미에서든 상관없이— 인간 내면적 요소들이 중요하다는 것이다.(105)

반 드 벨데에 있어서 ‘의의 있는 것 Das Sinnhafte’은 지시범위를 전제한다. 즉 어떤 것이 ‘의의 있기’ 위해서는 언어 수용자가 스스로 ‘의의 있는’ 지시 범위를 구성해야만 한다.<sup>15)</sup> 다시 말해서 언어 수용자는 조건문을 이용하여 6)을

15) 반 드 벨데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실어증 환자들의 그림 정렬테스트를 언급하고 있다(107).

추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7)을 추론한다.

6)

만약 내가 나를 스스로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나는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없다.

나는 나 스스로를 모른다.

-----  
따라서 나는 내가 모르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을 알지 못한다.(108)

7)

(1) 이를테면 언어수용자는 예 1)에서 만약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면의 전제 조건부를 그때마다의 관련에 있어서 어떤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지시범위가 결여된 명제내용의 복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그밖에도 언어수용자는 그러면 나는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결과부를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실제의 지시범위에서 검증할 수 없는 말로서 이해할 수 있다.(108)

다시 말해서 2.2.2.장의 예) 1에서 텍스트 수용자는 응집성 구성을 위해서는 제거되어야 할 어떤 불확실함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되고,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의의 있는 지시범위를 상정하게 된다. 즉 의의 있는 지시범위는 인간 내면적인 요소들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에 속하는 것으로는 감성, 인생경험, 교양정도, 성숙도, 선입견, 환상, 지능, 기질, 흥미, 재능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 내면적인 요소들이 응집성 구성을 위해서는 큰 역할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연구된 적이 없음을 반 드 벨테는 지적한다. 그렇지만 만약에 2.2.2.장의 예 1)에서처럼 어떤 사실의 의의 있는 지시범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 그것을 의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다음과 같이 다시 쓰기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8) 내가 만약 이 가든파티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다면, 나는 그러한 사실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109)



이것은 해석적인 추론 과정이 논리학적 규칙이나 규범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를 넘어서 종종 인간 내면적인 영역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반 드 벨데에 있어서 응집성 구성조건을 위한 다음과 같은 가정이 뒤따르게 된다.

#### 가정 18

응집성 구성조건은 언어 소여성 내에서 뚜렷이 나타날 뿐 아니라, a) 언어중심 추론을 가능하게 하고 b) 의도성과 이와 결합된 심리적 권한부여 수단에 적용할 수 있고 c) 의의 있는 지시 범위를 구성하게 하는 인지적 과정에서도 존재한다.(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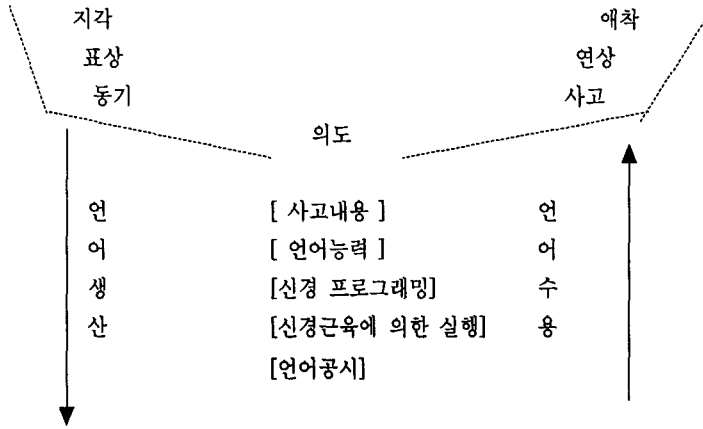
### 2.2.4 신경(심리)학적 방향 내에서의 언어수용

반 드 벨데에 있어서의 응집성은 심리학적인 차원을 넘어서 신경학적 방향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는 “중추 신경 시스템에 있어서 언어학적 계획(111)이 중요하다. 이러한 신경 심리학적 방향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어 병리학적 장애와 언어 행위의 토대를 이루는 인간 내면적 단위들이 아주 주요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언어 연구의 ‘신경 심리학적 전환’이라는 또 하나의 가정이 생겨나게 된다.

#### 가정 19

표현적·수용적 언어 행동은 우선적으로 아주 복잡하게 연구되어야만 한다. 만약 인간들이 자신의 내면적인 성질과 조건들을 어렵하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중앙·주변 신경 체계의 활성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110)

인간의 생체 조직은 다양한 신경학적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동적인 신경세포 구조 내에서 작동한다. 이즈음에서 당연히 다음과 같은 질문을 예상할 수 있다: 응집성 구성에 있어서 이러한 신경학적 프로그램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반 드 벨데는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도표를 제시한다. (112)



우선적으로 위의 도표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개의 실제적인 단위들을 포함하고 있다: 1) 심리학적 사실들, 2) 사고내용, 3) 언어능력, 4) 신경 프로그래밍, 5) 신경 근육의 실행, 6) 언어공시 Sprachmanifestation. 하나씩 간략히 설명해 보기로 하자.<sup>16)</sup>

- 1) 심리적 소여성에는 위의 도표에서 최상위에 위치한 동기, 지각, 표상, 의도, 애착, 연상, 사고 등이 속한다.
- 2) 언어 생산·수용에서 사고 내용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언어 능력을 가진 인간은 언어 생산·수용을 위한 독자적인 사고 내용 차원의 인지 관련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지 관련 체계는 언어사용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전체 개념 구조를 포함하고 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사고 내용이라고 한다.
- 3) 언어 능력은 언어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요소(다시 말해서 지능, 장·단기 기억, 관심, 흥미, 신경 프로그래밍, 의도성 등)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언어와 결합된 지식 단위들의 총체성으로 파악될 수 있다. 어떤 개별 언어에서의 언어 능력은 규칙의 집합에 의한 문법 내에서 재현될

16) 반 드 벨데(1981: 113 이하)를 참조할 것.

수 있다.

- 4) 인간의 대뇌피질은 특수한 구조적 특성과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 없이는 언어 활동은 불가능하다. 언어 활동은 계속되는 조직화에 의해서 표시된다. 발화, 텍스트 단편 그리고 텍스트의 응결성 현상 내에서 뿐만 아니라 응집성 현상 내에서도 제시되는 조직화는 대부분 신경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조건 지워지고 한정되어 있다.
- 5) 신경 근육의 실행에서는 언어생산에 있어서 반듯하게 조직화된 언어적 사용 단위들이 실현될 수 있게 하는 주변적 신경 체계가 중요하다.
- 6) 언어공시라는 것은 인간 자연언어의 소여성이 어떻게 공시되는가라는 것이 관건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도표에서 언어 생산과 언어 수용이 신경학적 관점 하에서 제시되어 있다. 도표 좌우의 화살표는 이 양측의 관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언어 생산의 경우 위에서 아래로, 언어 수용의 경우 아래에서 위로 진행된다는 방향성이 암시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언어 생산과 언어 수용에 대한 고전적인 설명 메카니즘이었던 “거울상과 같은 모사 *spiegelbildliche Abbildung*”(쉐르너 1984: 227)를 생각나게 하기에 충분하다. 다시 말해서 언어 수용은 정확히 언어 생산의 역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반 드 벨데는 언어 생산과 수용의 대칭성에 대한 반박을 정확하게 예상했음인지, 이 두 개념 사이의 테칼코마니적 성질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다.(111) 그러나 그의 아주 단순화 된 도표를 보면, 그러한 반박으로부터 벗어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는 또한 위 도표에서 각각의 요소들은 고립되어서 이해되어서는 안되고, 언제나 상호 보충적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111) 따라서 이러한 전체적인 틀을 거시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장에서 보는 것과 같은 복합적이고 학제적인 차원이 이어지게 된다.

### 2.2.5. 학제적 연구 테마로서의 응집성

다음과 같이 ‘가정 20’으로 시작되는 반 드 벨데의 응집성을 위한 학제성은, 사실 이 장이—반 드 벨데가 구성한 것 같이—‘인간 내면적’, ‘신경 심리학적’ 응집성 차원과 동일 선상에 있는 장이 아니라, 그의 이론에서 가장 상위에 위

치하는 장임을 추정하게 한다.

가정 20

인간의 자연 언어에 있어서 언어학이 증명하는 조직화는 한편으로 신경 체계의 해부학적·생리학적 조직 내에서 경험적인 상관 개념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지적·정신적 조직화와 조응한다.(118)

왜냐하면 ‘학제적’이라는 차원은 지금까지 분리해서 논의해왔던 여러 개별 분야를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자신의 책의 초반에 주장한 응집성은 ‘언어적 차원’과 가장 밀접하다는 사실과는 상충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왜냐하면 반 드 벨데에서의 ‘응집성 연구’의 핵심은 언어학적, 심리학적, 논리학적, 생리학적, 신경학적인 ‘간학문성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 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반 드 벨데의 응집성 연구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1) 응집성은 언어 이해의 필수적 전제조건이다.
- 2) 이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응집성을 이해함이 필수적이다.
- 3) 응집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론에 관한 이해 또한 필수적이다.
- 4) 추론 이후에 응집성이 생성된다.
- 5) 응집성 연구는 다양한 차원(언어 내적, 인간 내면적, 지시관련과 사건 관련 그리고 인간상호간의 통보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6) 따라서 응집성 연구는 간학문성을 띄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반 드 벨데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응집성 차원들이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연구 분석될 수 있는가의 문제, 응집성 연구를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차원을 다 고려하여야만 하는가의 문제 (왜냐하면 텍스트 종류에 따라서 특정한 차원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 나머지는 아무런 영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차원들이 너무나 평면적인 기술로 일관되지 않았는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인 채 남겨져 있다. 또한 추론과 이해 사이에 위치하는 반 드 벨데의 '응집성'<sup>17)</sup>은 그가 확고하게 주장하는 것처럼 '진실로 존재하는 어떤 실체인지', 그렇지 않으며 추론 또는 이해에 편입되어야 하는 '추상적인 허구개념'인지의 여부도 여전히 열려있다. 그리고 반 드 벨데가 자신의 저서 초반부에 여러 번 주장했던 추론과 이해사이의 관계 규정도 쉽지 않다. 이에 덧붙여서, 반 드 벨데는 응집성의 언어적, 논리적, 심리적, 신경 생리적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친 학제적 성질에 대해서 논하고 있지만,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관통할 수 있는 통일적인 이론형성이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이중적인 다양한 분야를 한데 섞어 단지 판박이적인 주장을 하고 있음도 간파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드 벨데의 이론이 의의 있는 것은, 비교적 텍스트언어학의 초창기기에 거시적인 공간에서 응집성 규명을 위한 다양한 기제들에 대해서 언급한 것과, 응집성을 이해를 위한 하나의 과정(또는 수단)으로 간주하면서 언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텍스트 이해'에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Beaugrande, R.-A./Dressler, W. (1981): Einführung in die Textlinguistik. Tübingen: Max Niemeyer. (김태옥·이현호(공역), 『담화·텍스트언어학 입문』 서울: 양영각, 1991).
- Brinker, K. (1997(1985)): Linguistische Textanalyse. Eine Einführung in Grundbegriffe und Methoden. 4., durchgesehene und ergänzte Auflage. Berlin: Schmidt.
- Dressler W. (1973): Einführung in die Textlinguistik. Tübingen: Niemeyer.
- Grice, H.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 Cole/ J.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III: Speech Acts. New York: Academic Press.
- Linke, A./Nussbaumer, M./Portmann, P. R. (1996): Studienbuch Linguistik. 3.

17) 일반적으로, '응집성'이 자주 사용되었던 텍스트언어학(텍스트문법)의 장에서는 '텍스트응집성'이라는 용어도 별 무리 없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필자가 아는 한, 반 드 벨데에 있어서 술어 '텍스트'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 unveränderte Auflage. Tübingen: Niemeyer.
- Scherner, M. (1984): Sprach als Text. Ansätze einer sprachwissenschaftlich begründeten Theorie des Textverstehens. Tübingen: Niemeyer.
- Velde, R. G. van de (1981): Interpretation, Kohärenz und Inferenz. (Papier zur Textlinguistik 33). Hamburg: Helmut Buske
- Wahrig, G. (1979): DTV-Wörterbuch der deutschen Sprache, München.
- 권재일 (1999): 「텍스트언어학과 인문학」, 권재일 · 김윤환 · 김효중 · 문양수 · 허창운, 『언어학과 인문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7-234.
- 김태욱 (1996): 「텍스트언어학과 현대문학. 문학적 커뮤니케이션의 대체성 원리를 중심으로」, 『새국어생활 6-1』, 108-139.
- 송경숙 (2003): 『담화 화용론』, 서울: 한국문화사.
- 이성범 (2001): 『추론의 화용론』, 서울: 한국문화사.
- 이성범/장인봉/전혜영/최명원 (2002): 『화용론 연구』, 서울: 태학사.
- 이재원 (2000): 「고리적 텍스트응집성 수단들」, 『텍스트언어학 9』, 67-90.
- 이재원 (2001): 「응집성, 응집성들」, 『텍스트언어학 10』, 153-188.

## Zusammenfassung

### Kohärenz von Roser G. van de Valde

Lee, Jae-Won(HUFS)

Die vorliegende Arbeit behandelt die Probleme der Kohärenz und Interpretation von van de Velde unter einigen Gesichtspunkten, welche mit der Frage zusammenhängen: Wie wird Sprachverstehen ermöglicht? Nach van de Velde besteht der wissenschaftliche Zugang zu den Sprachverstehensprozessen und Interpretationsstrategien darin, dass man Erkenntnisse über ihre bedingenden Faktoren gewinnt. Seine Arbeit versucht diese bedingenden Faktoren in folgenden Gegebenheiten aufzufinden: 1) in den innersprachlichen Gegebenheiten, 2) in den Referenzzusammenhängen, auf die sich innersprachliche Gegebenheiten beziehen, 3) in den Handlungskontexten, in denen die verwendeten Sprachgegebenheiten ihre Funktionen haben, 4) in den zwischenmenschlichen Kommunikationsrahmenverhältnissen, 5) in den kognitiven Prozessen des Sprachrezipienten, in der neuro(psycho)logischen Ausstattung des

Sprachbenutzers. Genau gesagt, bleiben die folgenden Fragen trotzdem immer nur offen: 1) Kann jede Ebene für die Kohärenz bei van de Velde in der Wirklichkeit schon da sein? 2) Sind die Wertigkeiten jeder Ebenen gleich? 3) Muss die Kohärenz zwischen Inferenz und Verstehen sein? 4) Gibt es irgendeine Einheitstheorie, solche interdisziplinäre Faktoren zu beherrschen?

[검색어] 응집성, 추론, 간학문성  
Kohärenz, Inferenz, Interdisziplinarität

이재원

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번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양어대학 독일어과  
arthurlee@hanmail.net